

비폭력 시위·집회엔 물대포 사라진다

경찰청 개혁위 권고 수용...국가시설 공격때만 허용

경찰력 행사 자제 방침...집회·시위 온라인 신고 도입도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해 온 경찰의 나쁜 관행이 개선된다. 또 고(故)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살수차는 집회·시위 현장 내 투입이 금지된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세부 지침을 담은 부속의견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이번 권고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해서는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온 집회·시위 대응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시위는 신고나 진행 과정에서 다소 흠

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개혁위는 권고했다.

권고안은 집회·시위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 등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주최 측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집회·시위의 인원, 시위 방법, 행진 경로 등이 사전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신고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 통고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집회·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임에도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금지통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금지통고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

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울과 광주 등 주요 도시 내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는 차량 통행에 일부 차질을 주는 일이 불가피한 만큼, 교통 소통을 이유로는 전면 금지통고나 사실상 집회·시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한통고 등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살수차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개혁위는 살수차 사용 가능 요건을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 중요시설 공격행위'로 제한하고, 집회·시위에는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살수차 사용 명령권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 규정해 책임을 강화했다.

최루액을 물과 혼합해 살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압 기준을 전보다 낮춰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격력이 큰 직사살수 '지면살수' 후 점차 상황에 기승 이하 살수' 등으로 사용 방식을 엄격히 정하도록 했다.

과거 집회 현장을 둘러싸 시민 통행까지 막던 차벽도 집회 참가자 안전 보장이 어렵거나 폭력행위 제지가 곤란한 상황에 만 예외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개혁위는 특히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집회·시위 현장에 대한 경찰의 채증도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해지거나 그 직후' 등으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산명령과 강제해산 등도 구체적 위엄이 발생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에 사용되는 경찰 무전망을 녹음·보관해 경찰 법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경우에 따라 도로로 통행하더라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의 수사하지 않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가 제시한 권고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모든 권고 내용을 수용하겠다"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집회·시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故 이길연집배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아픈 집배원 출근 강요 책임자 처벌하라” 전국 우체국노조와 광주지역 노동·사회단체는 7일 서광주 우체국 앞에서 이 우체국 소속 이길연 집배원의 사망과 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망한 이씨는 지난 5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교육청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강력처벌”

“원아모집 정지·운영비 미지원 등 행정처분”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 집단 휴업을 예고하자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 처벌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와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18일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사립유치원들은 18일 1차 휴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25~29일까지 5일간 2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집단휴업을 불법휴업으로 규정된 뒤 이날 휴업금지 행정고

에 나섰다. 이번 휴업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유아모집 정지·유아 및 학급 수 감축·운영비 미지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장휘구 시교육감은 이날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갑작스런 집단 휴업예고로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철회할 것과 교육과정

정상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 4일 임의대로 휴업에 나설 때 불법파업으로 규정, 행정적 규제에 나서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도내 사립유치원 112곳에 보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상보다 적은 규모의 사립유치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6 해질 18:50
 달출몰 20:13 달지름 07:49

나들이하기 딱!

주말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조금	19/29	보성	구름조금	16/27
목포	구름조금	20/27	순천	구름조금	19/30
여수	구름조금	21/28	영광	구름조금	18/28
나주	구름조금	16/29	진도	구름조금	21/25
완도	구름조금	19/29	진주	구름조금	18/28
구례	구름조금	17/29	군산	구름조금	18/28
강진	구름조금	17/29	남원	구름조금	17/28
해남	구름조금	17/27	속천	구름조금	20/26
장성	구름조금	16/27			

◇비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높음	자외선
보통	파부질환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39	03:29
		20:53	15:04
여수		04:04	10:17
		16:12	22:37

◇주간 날씨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	☀	☁	☀	☀	☀	☀
19/30	19/30	22/26	20/29	18/30	19/29	19/28

도립대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

도립대총장협 의결...전국 7곳

전남도립대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전국도립대총장협의회는 6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7개 도립대학의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7개교는 전남도립대, 강원도립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북도립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다.

이들 학교는 지난달 17~18일 강원도립대에서 열린 전국도립대총장협의회 총회에서 충남도립대학교의 입학금 폐지에 대한 인권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후속 조치로 각 학교는 소속 도와 협의해 이번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협의회는 신입생 가계 부담을 낮추고 입학금 징수 문제의 취지를 반영해 공공성을 추구하는 학교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입학금 폐지 결정으로 신입생 등록금의 인하율이 작년 대비 16~25% 된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이들 학교는 올해까지 각 23만~31만 6000원의 입학금을 받았다. 입학금 폐지안은 11월 이전에 각 소속 도에서 운영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조례와 학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입생 입학금 폐지 수혜에 따른 입학금 세입 감소분은 소속 도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교통 혼잡’ 송정역 택시 승강장 ‘숨통’

내달부터 2차선으로 확대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 송정역 택시 승차장의 대기 차선을 현재 1개 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달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1개 차선에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면서 일반 승·하차 차량, 버스 등과

교입 현상이 발생하는 등 큰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광주경찰청은 대기 차선이 확대되면 대기행렬이 많이 줄어 교입·혼잡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유관기관, 택시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교통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대한보청기 www.maxo.co.kr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이 제원은 '광고가 아닌,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서버방'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프로' 맥소'스텝' 맥소'크리스프' 맥소'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견정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특가50%·맞춤렌탈·장기신용할부·국가보조금 대상자 특별지원

365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현재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1544-9040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